

#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세대주의 신학(dispensationalism)은 영국의 배타적인 플리머스 형제교회(Separatist Plymouth Brethren)의 지도자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에 의해 시작된 배타적 교회운동으로 당시 제도권 교회인 성공회에 반발하여 일어났으며, 스코필드 관주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에 의해 영어권에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많으며, Biola, Moody, Dallas, Grace 신학교 등은 세대주의 신학의 대변자로 알려져 있다. 세대주의에는 점진적 세대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극단적 세대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시스템에 따라 신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개신교 정통신학인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그것이다. 두 신학체계는 구원과 율법, 종말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다비는 자신의 교리를 "재발견 진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한국의 폐쇄적 형제교회와 유병언, 박옥수, 이요한의 구원과, 말씀보존학회, 베뢰아, 그리고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 등이다.

세대주의의 보편적인 교리의 특징은 개혁주의 신학과 네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첫째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회복을 주장한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데, 이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며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고 이방인은 그의 입양된 시민이 된다. 셋째, 세대주의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분류하여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

역사를 무죄(innocence)시대, 양심(conscience)시대, 인간통치(human government)시대, 약속(promise: Patriarchal Rule)시대, 율법(Law)시대, 은혜(grace)시대, 천년왕국(Kingdom: Millennium)시대 등 일곱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말한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하였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주장은 율법과 은혜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렸고, 지금 성도들은 은혜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넷째, 7년 대환란 전 휴거설과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세대주의의 구원론과 빛나간 이단적 종말론이 이단의 생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구원과 율법과 은혜:** 개혁신학(Reformed Tradition)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며, 모세의 법에는 시민법과 의식법, 도덕법이 있는데, 도덕법에는 ①시민적 ②영적 ③규범적 3가지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성격이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성취된 구원으로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대주의자들은 율법의 도덕적, 규범적 용도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은혜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율법인 십계명을 존중은 하지만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신약시대라 해서 십계명이 폐해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동섭** 안양에 있는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맹) 총재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국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감독회원이다.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상담과 가정사역(Ph.D.)을 연구하였으며 18년간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상담과 가정생활을 강의하였다. 세월호 사건 후 TV조선, MBN, 채널A 등에 출연하여 유병언과 구원파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였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등 50여권의 역사와 『자존감 세우기』, 『부부연합의 축복』,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등 15권의 저서가 있다.

약 130년의 한국교회사 속에서 대부분의 교역자들과 부흥사들이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종말론을 가르쳤으며, 그 극적인 내용 때문에 듣는 자들은 쉽게 거기에 빠져들었다. 2000년 안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했던 대형교회 J 목사나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그리고 유병언과 이요한의 구원파도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세대주의 사상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무천년 왕국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천 년은 계시록 20장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 10을 세 번 곱한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세대주의 종말론:** 사도 요한이 본 천년왕국 비전에 대한 정확한 해석문제는(계 20:1-10) 2세기 이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장이 확고해졌는데 다음과 같다.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전천년설'(premillennialism),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그리고 재림 이전이나 이후에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의 지상통치도 없다는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 그것이다.

각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하여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천년설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천년왕국의 천 년을 교회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천 년을 지금 천국에서 이뤄지는 죽은 성도들의 통치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천년설은 "지배적인" 천년왕국의 견해였다. 하지만 세대주의 측에서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지상 천년왕국의 해석"이 19세기 중엽부터 일어나서 보수적인 기독교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왔다.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구분된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징조가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배도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으로 본다. 교회시대의 정점은 휴거이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실한 제자들을 '공중에서' 만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실 것이다. 참된 교회가 이렇게 지상에서 사라지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악마적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쏟아진다. 이러한 대환란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셔서 원수를 쳐부수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며,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기독교인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예수의 재림 시점)에만 집착하도록 만들어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주창했던 다미선교회나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은혜로교회는 소속교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피난처에 모여 인위적으로 회개하게 만든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신앙이 아니다.

연대기적 해석을 하게 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율법과 은혜를 대립적 개념으로 분리시켰다. 율법은 모세와 행위, 은혜는 그리스도와 믿음에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율법은 결코 구원이나 칭의의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은 죄인을 칭의하지도 않고 신자를 성화시키지도 않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성향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삶을 분리시킨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등한시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환상적인 이상에 몰두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유토피어나 지상천국을 약속한 이단종파에 미혹되어 현실의 삶을 망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무천년설은 천 년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고 완전수인 10을 세 번 곱한 총만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의 천 년을 교회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천 년이란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승리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칼빈과 어거스틴도 이 입장을 취했다. 1000은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시는 총만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천 년은 단지 택한 백성을 전부 구원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다.

20세기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전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을 벗어난 매우 불건전한 해석이다.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은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인터콥, 구원과 등으로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7년 대환란, 휴거, 그리스도의 2중 재림, 천년왕국, 십 사만 사천, 666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종말에 강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예언적 교훈에 대한 지나친 관심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현재의 세계 정세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차츰 이 주제에 마음을 빼앗겨 정복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는다. 이 예언적 교훈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에 위험한 것은 없다. 러시아, 이집트, 이스라엘 및 그 밖의 나라들을 생각하고 에스겔 37, 38장이나 다니엘 7-12장 등의 예언적 관점에서 여러 시기나 경우를 계산하는 데 모든 시간과 생애를 허비하기 쉽다. 한편 영적 의미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점점 무관심하고 등한시할 수 있다. 물론 예언적 교훈은 성경의 중요한 일부이고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래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가지로 우리들의 일차적인 위험은 균형이나 조화의 감각을 상실하는 데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14:36)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때와 기한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7)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현실과 주어진 사명에 더욱 충성하며 봉사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날과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다(마 24:36; 벰후 3:11,12).

우리는 특별한 ‘종말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기 직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선견자 요한처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때가 가까우니라.”(계 22:10)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말세의 징조는 다음 네 가지이다: ①사람의 징조 “미혹”이다(마 24:4); ②환난의 징조 “난리”이다(마 24:6);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③자연의 징조 “재난”이다(마 24:7-8).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 ④종교적 징조 “이단”이다: 각종 사이비종교가 난무하고 있다(마 24:11,23-24). 우리 모두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핑계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살전 4:11).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를 맞아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불신자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시기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매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베드로도 훈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벰후 3:11-12) 